



‘JJ 슈퍼스타봉사단’ 태풍피해 재난복구 봉사

학생 교직원 90여명 참가, 07년 EM자원봉사단에 이어 두번째

원봉사활동을 펼치고, 태안반도 주민돕기 성금 93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JJ슈퍼스타봉사단은 9월 10일 고건 총장을 비롯하여 학생 및 교직원 90여명은 태풍피해 재난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발족식을 가진 JJ 슈퍼스타 봉사단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심한 전미동 지역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철거, 주변 잔재물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태풍으로 강풍과 많은 비가 내려 전북지역 농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력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고건 총장은 “연이은 태풍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구성

원들이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봉사자로 참여했던 신우철 학생(축구전공, 1)은 “작업량이 만만찮아서 몸이 힘들었지만 봉사 선물도 잔뜩 받는 기분은 봉사자가 주는 기쁨일 것이다”며 “다음에도 지역사회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대학은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교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EM자원봉사단을 구성해 4톤의 EM활성액

으로 바다수질을 정화시키는 자

헌 책 줄게~ 새 책 다오~ ‘책사랑 도서교환전’으로 나눔의 정신 실현

이미 사용한 수업 및 전공교재나 일반도서를 새 책으로 교환할 수 있는 행사가 스타센터에서 열린다. 도서관(관장 김미진)에서는 기증문화 조성 및 도서의 재활용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책사랑 도서교환전’을 오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도서관 앞 스타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기증하고자 하는 도서를 도서관에 접수하고 교환권 발급받아 행사 기간 중 원하는 도서로 교

환하면 된다. 기증할 수 있는 책은 대학교재, 전공도서, 일반교양도서로 17일부터 28일까지 도서관 대출실에서 접수한다. 단, 오염이나 훼손된 도서, 정답이 체크된 문제집, 기관이나 단체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도서, 만화책 등 사회통념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특정 종교에 치우친 도서, 복사 및 제본 도서는 예외다. 한편 베스트도서를 20% 할인판매, 추첨을 통한 경품지급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청. 춘. 고. 백.”
(靑春:GO,BACK)

* 일 시 :
2012년 9월 26일 ~ 28일 (3일간)

* 장 소 :
전주대학교 노천극장

* 주관 · 주최 :
제39대 똑.똑.똑 총학생회

모든 구성원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여름방학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각각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2012학년 2학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과 인명손실도 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2학기 개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학기는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진 자로써 각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에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님에게는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은 화평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취가 나게 하시옵소서.

배우는 학생들은 지역과 나라를 위한 진리, 평화, 자유를 굳게 지키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간 시간을 아껴 모든 일에

열심으로 봉사와 믿음과 기도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과 마음과 육체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럽고 추한 세상의 사탄과 죄악이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중훈 장로(대체건강관리학부)



소외지역에서 잔잔한 감동의 '올림'

복지관, 지역아동복지센터서 봉사활동



봉사단 올림(단장 송명희-사회복지 2) 소속 학생 50여명은 15일(토) 꽃밭정아동복지관, 덕진,삼천,송천나눔지역아동복지센터 등에서 독거노인방문하여 집안청소, 아동학습지도, 상담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5일 평화관에서 가진 발대식에서 봉사활동 단체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와 열린 소통으로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눔과 배려라는 지속적인 실천들이 긍정적인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 멀리 퍼져나가자고 다짐했다.

'올림'은 지난해 연말 연탄배달봉사활동을 계기로 입학사정팀(팀장 정종원)과 e-복지관(관장 김광혁교수)이 연계하여 결성한 봉사단으로 전북지역 고교생, 전주대 재학생과 e-복지관에서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장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송명희학생은 "고교생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지역의 어려움에 동참함으로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있다"며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교내에 더욱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시 2차 모집, 평균경쟁률 4.11:1

11일(화) 마감된 수시 2차 모집 집계결과 1,083명 모집에 4,446명이 지원, 평균경쟁률이 4.11:1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일전형의 경쟁률이 3.39: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수시 1차 모집에 이어 큰 폭으로 향상하였다.

내 주요 사립대학 중 경쟁률 1위를 유지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는 최첨단 학생복합문화관인 스타센터 개관 등 재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역 내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얻어진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 20명,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3명 등 총 896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지역인재균형선발전형에서 면접비율을 높임으로써 관심 있는 학과(전공)에 준비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예비)창업자 전형은 전라북도 유일의 2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우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근호 입학관리처장은 "수시 6회 제한과 대학진학률의 현저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의 경쟁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도

한편 1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진행되는 수시3차 모집에서 일반학생 663명, 지역인재균형선발 200명, (예비)창업

전통시장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획캠프'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센터장 한동승/이하 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일원에서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와 공동주관으로 '제3회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획캠프'를 열었다.

특강 '전주남부시장에 새숨을 불어넣는 사람들' 외 2개의 특강과, 집단지도 방식의 워크숍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최전선의 각 미디어아트 전문가들과 문화현장의 활동가들,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전선의 각 미디어아트 전문가들과 문화현장의 활동가들,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며 성장함으로써 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강 '전주남부시장에 새숨을 불어넣는 사람들' 외 2개의 특강과, 집단지도 방식의 워크숍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최전선의 각 미디어아트 전문가들과 문화현장의 활동가들,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한동승 센터장은 "이번 미디어 캠프는 프로젝트 작품의 전시를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는 작업이 될 것이며, 최

또한 8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열리는 쇼케이스 파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동정)

안덕수 교수 옷칠작품전



안덕춘교수(리빙디자인전공)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옷칠아트 및 옷칠공예작품을 전시한다.

안교수는 그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칠공예작품 전시를 통해 한국의 옷칠문화를 널리 알려왔으며 동아일보일민미술관, 익산보석박물관,통영옷칠미술관, 서울에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류인탁동문 체육부 특강



류인탁동문(객원교수, 불문졸업)은 지난 13일 2-2캠퍼스 대강당에서 체육부(부장 이종현) 초청 '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류동문은 이날 특강에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류인탁동문은 지난 84년 LA올림픽에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 로이터통신으로부터 '올림픽 6인의 영웅'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 공모전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비문인 발굴을 통하여 문학분야의 수퍼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제 2회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비문인 발굴을 통하여 문학분야의 수퍼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제 2회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가. 시: 3편 이상 제출
 나. 소설: 단편 200자 원고지 120장 내외
 다. 산문: 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에세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공모주제 자유주제

응모자격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상 금

가. 시: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나. 소설: 당선 100만원 / 가작 50만원
 다. 산문: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 작품의 수준이 시상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당선자 발표 및 시상

가. 당선자는 2012년 10월 중 대학신문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함.
 나. 당선작은 대학신문에 게재함
 다. 시상식은 2012년 11월 중에 실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12. 9. 24(월) - 9. 28(금)
 나. 접수장소: 신문방송국 사무실
 560-759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학생회관 3층) ☎ 063-220-2441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
 - 원고 사본 2부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

전주대학교

취업페스티벌 '전주대학교 일어나자'



20일 스타센터 온누리홀 · 다목적홀

대학생들의 취업고민을 타파하기 위한 대학취업페스티벌이 오는 20일(목) 스타센터 온누리홀과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방대생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일어나자'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으로 구성된 '취업서포터즈'가 기획부터 홍보, 진행까지 도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장길호), 학생취업처(처장 최홍식)가 이들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후견인 역할을 맡았다.

조기운(금융보험 3), 고대영(금융보험 3), 박영찬(금융보험 3),

서나눔(경영관리 3)의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주대학교 일어나자'를 만들었다.

취업정보에 취약한 복학생과 여학생들이 취업달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통해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온누리홀에서 열리는 1부 행사에는 임동일, 김민지, 선창균 강사의 특강과 축하공연이,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2부 행사에는 멘티대표 20명이 펼쳐는 2분 스

피치, 멘티대학생들이 멘토를 스스로 찾아가서 그룹상담과 경험담을 나누는 '달인을 만나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 창업총동아리연합회, 슈퍼스타제도,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캐치더월드 해외연수, 교내 장학금, 워킹홀리데이 등 대학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 총괄운영팀장 황민이학생(사진/광고홍보 3)은 "대학생들은 누구나 흔히 말하는 스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나 장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남들이 다 하는 토익 성적, 학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꼬집은 후 "정보가 부족한 지방대생, 즉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각자가 진정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고 활기차고 보람있는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셰익스피어극회 30주년기념 영어연극 영미언어전공 'The Twelfth Night' 공연

영미언어전공(전공주임 문순표교수) 셰익스피어극회(극회장 전재현, 영문3)에서는 지난 14일(금)과 15일(토) JJ 아트홀에서 영어연극 The Twelfth Night(십이야)를 3회에 걸쳐 공연하였다.

셰익스피어극회 30주년 기념공연으로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약 1,000여명의 동문 및 학생들이 관람하였다.

셰익스피어극회는 1983년



창단영어연극공연을 시작한 이래 29년 동안 매년 셰익스피어 작품을 소재로 영어연극을 해왔으며 이는 전국 유일의 극회로서 영미언어전공의 자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극회이다.

'세계태권도한마당경연' 성적 우수

개인 격파부문 전종목 석권

태권도학과(학과장 최광근) 태권도시범단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린 '2012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경연'에서 개인 격파부문 전 종목을 석권했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50개국

2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이 주최하는 가장 큰 대회로 30세이상 통합 종합격파 1위 박동영 객원교수, 남자개인 1위 김환진 선수(1학년), 여자개인 1위 박수인 선수(4학년), 개인 발위력격파 3위 윤석주 선수(1학년)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공존(Coexist)' 주제, 총 96작품

패션산업학과(학과장 박현정)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2012 패션산업학과 졸업 작품패션쇼'를 개최한다.

이번 패션쇼는 지구 최대 이슈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담아 '공

존(Coexist)'을 주제로 총 96벌의 작품이 소개된다. 그간 패션산업학과는 매년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꾸민 친근한 졸업 작품패션쇼를 열어 큰 호응을 얻어왔으며,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현대무용 퍼포먼스, 테마 영상쇼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연극 '갈매기' 공연

20일, 21일 우진문화공간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학과장 박병도)는 졸업작품으로 연극 '갈매기'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20일(목), 21일(금) 양일간 전주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되는 연극 '갈매기'는 안톤체희의 작품으로 박병도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연출을 맡은 이미리 학생(4년)은 "갈매기는 연극무대의 귀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연극지망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다"고 말했다.

홍보에 나선 윤준석 학생(4년)은 "4년간 다져온 연기력으로 심리적 내면연기를 펼치게 된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떨린다"면서도 "배우들의 실력이 뛰어나 프로배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연은 20일 오후 7시 30분, 21일 오후 4시, 7시 30분으로 12세 이상 전좌석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12 건축전' 센터 아트갤러리에서

21일 공개크리틱, 초청강연

'2012 건축전'이 17일부터 28일까지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건축학과(학과장 백석종) 졸업예정자의 졸업작품전인 이번 건축전에는 함승호학생(건축 5)의 'Revert to people=空間還元(공간환원)'의 12작품이 전시된다.

2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공개 크리틱과 초청강연이 펼쳐진다. 오후 3시에는 설계자가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공개 크리틱이, 오후 6시에는 임현남강사(가온건축대표)의 "이야기로 집을 짓다"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있다.



고마운분께 드릴수 있도록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전주대 藥고추장 한가위 할인 판매

할인기간: 2012.09.03(월) ~ 10.05(금)

학교기업 전주대 공중약고추장 / 063-220-2092 <http://redpepper.jj.ac.kr>



청·춘·고·백

(靑春: GO, BACK)

| 일 시 : 2012년 9월 26일 ~ 28일 (3일간)
| 장 소 : 전주대학교 노천극장
| 주관/주최 : 제 39대 독·독·독 총학생회

가을이 아름답게 영글어가는 9월에 '청춘고백'이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 대동제를 열고 학우여러분과, 동문선배님, 학부모,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2012년 대동제의 슬로건은 "청춘Go Back(고백)"입니다. 슬로건으로 '청춘고백'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젊은이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노래입니다. 현재를 딛고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야 할 청춘들이 현실의 여건에 묶여 종종거리며 뒷걸음쳐야 하는 안타까움을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부디, '청춘고백' 대동제에서 '희망과 환희의 미래'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대동제는 숨어있던 젊음의 열기와

패기, 낭만으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애써 눌러야 했던...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청춘의 모든 것이 분수처럼 솟구칠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대학교 노천극장으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가 조화롭게 퍼질 것입니다. 특히 조화를 위해서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신 역도민들과 함께 어울릴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와 낭만에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이번 '청춘고백' 대동제를 위하여 총

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계십니다. 열심히 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총학생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격려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청춘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데 손잡아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제39대 독·독·독 총학생회장 이형훈 올림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 대상자
 - 1학기 기본교육훈련 불참자
 - 2학기 복학생
- 교육일정
 - 경영대학, 공과대학 10. 8(월)
 - 대체의학대학, 문화관광대학, 문화산업대학, 사범대학 10. 9(화)
 -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인문대학 10. 10(수)
- 입소안내
 - 장소 : 김제대대 예비군훈련장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 훈련 대상자는 8시 50분까지 훈련장 입소
 - 학교 차량지원 : 훈련 당일 8시 20분까지 예술관 앞 주차장
- 기타안내
 - 훈련일정 조정은 훈련개시 10일전(9. 28)까지 가능

직장예비군연대 (스타센터 237호)
☎ 220-2155, 2156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JJ 슈퍼스타 봉사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매일의 일과다. 그날 홈페이지에서 'JJ슈퍼스타 봉사단'을 모집광고를 본 것은 수확이나 다름없었다. 그렇잖아도 태풍피해를 보신 분들께 뭔가 도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다니, 작년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뒤 여러 나라 빈민층 가정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업을 통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왔던 참이었다.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면서 학교소속의 봉사단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9월 10일 아침 9시, 학생회관 앞에서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곧장 현장으

로 갔다. 태풍 '볼라벤'과 '텐빈'으로 상당한 피해를 겪은 전미동 일대 농가에 도착했다. 고 건 총장님을 비롯 여러 교직원, 학생 등 약 90여명이 함께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만까지, 피해 지역의 비닐 철거, 주변 쓰레기 제거와 다가오는 제16호 태풍 '산바'의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 땀별 더위에 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었고 당연히 힘들었다. 그러나 누구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며 웃었다. 말 그대로 한 마음 한 뜻이었다. 다친 사람 하나 없는 것도 감사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보람과 추억으로 가득차 행복했다. 하루가 이렇게 의미있다면, 시간과 육체의 고단함을 들었지만 뭔가 잔뜩 받는 기분이 들

었다. 이것이 봉사가 주는 참기쁨일 것이다. 하루하루 보내지만 이날은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전주대학교 구성원으로 조직된 봉사단에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봉사를 해보는 것이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단발성으로 조직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기적으로 지역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참사랑이 아니겠는가.

신우철 (축구전공. 1)



최고의 꿈을 꾸는 자의 선택
육군본부

'13년 육군 학사장교 | 학사예비장교 | 후보생 모집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20~27세 남성(예비역 : 30세 이하)
- 학력 : 학사장교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학사예비장교후보생 ▶ 국내 4년제 대학 1,2,3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인사서령부)

접수기간 ~ 9월 21일(금)까지

선발시험

- 1차 : 필기평가(국사과목 필기평가 포함), 서류전형
- 2차(최종) :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대우 및 특전

- 6월말 전역시기 조정으로 취업에 유리(9월 → 6월)
-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업에만 전념
- 국내 외 민간 대학원에 국비 취학 기회 부여(장기복무선발자)
- 군복무간 복지혜택 제공, 예비장교는 3백만원내 장려금 지원

문의처 및 모집안내

- 인사서령부 선발담당관
- 학사장교 : 02-505-7143, 042-550-7143
- 학사예비장교후보생 : 02-505-7147, 042-550-7147
- 각 대학 학군단
-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goarmy.mil.kr(육군모집)

육군본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전국대표: 1588-6953

보람찬 대학생활 후 내 꿈과 만나다!!
학사예비장교후보생 합격자 전원 장려금 지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육군모집에 대한 지원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육군모집

스마트미디어학부, 특별한 ‘그것’이 있다



(편집자주)

스마트미디어학부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해외영어연수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1년간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스마트미디어학부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4개의 교육프로그램(스마트교육, 기업형 맞춤형인재, 해외어학연수, 해외취업)과 5개의 교육과정으로 설계된 학부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고실업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고, 우리 학생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요구(전공실력+영어능력)에 부응하여 ‘어학능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IT & CT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해외 IT & CT 취업시장으로의 취업기회가 존재한다는 것과 국제 IT 자격증 취득 및 어학능력 신장을 통한 취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부의 ‘IT 학생 해외파견 사업’으로 진행된 인도와 미국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보시스템학과와 졸업생들이 SAP 등의 우수 외국 기업과 KOIKA(한국국제교류협력재단) 및 한국 대기업 등으로 취업한 사례에서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학부차원에서 학생전체로 성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2010년 9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영어 및 전공 교육 프로그램’을 필리핀 국제성경대학에서 시작하였고, 2명의 교수가 4개월씩 교대로 현지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영어공부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공수업을 병행 진행하여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취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교육비용과 현지 생활비의 부담인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2, 3학년으로 구성된 2기 팀은 말레이시아 UTM대학(University Technology Malaysia)에서 공부하고 있다. UTM은 싱가포르에서 30분 거리인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호바루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왕비가 명예총장, 총 학생수가 2500명 정도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고의 국립공과대학이다. 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첫 학기는 자신의 수준에 따라 레벨별 영어교육을 받으며, 이 과정을 패스한 학생들은 두 번째 학기에는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달 모의토익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있는데, 출발할 때 토익점수가 자신의 신발사이즈와 비슷한 학생이 5개월 만에 500점을 넘고, 평균 200점 이상의 능력향상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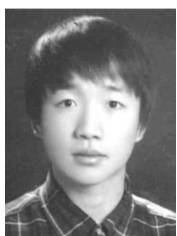
이고 있어 1년이 지나면 대기업의 입사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영어능력 향상에 힘쓴 결과이며 나타낸 버릇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통해 무궁무진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두가 외쳤던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을 보고 싶다”를 상기해본다.



권수태 교수
(스마트정보시스템 전공)

UTM에서 1년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



설주환
(상당심리, 4)

말레이시아로 교환학생,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돌이켜보면 뜻깊은 시간, 좋은 경험의 날들이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여 1인 1실의 기숙사를 배정받은 직후 압도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실력차가 있었기에 누구에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할지 모든 게 난감했다. 처음에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씩 하루 3~4시간 정도씩 만나 공부했다. 남은 시간은 개인적으로 단어를 외우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시간을 갖기를 몇 달. 그 후 학교 학기에 맞춰 영어 수업을 수강하면서부터는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강의 준비나 각자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나가며 외국학생들과의 회화를 늘려나갔다. 내가 다른 학생에 비해 외국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은 한국학생의 대표학생 자격으로 축제 진행에 참여하여 각

국의 대표 학생들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 학교는 10개국이 넘는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첫 학기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보냈지만, 두 번째 학기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더욱 오랜 시간을 보내며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전공 수업을 영어로 듣기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자료나 모르는 단어들 체크해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시한번 보는 것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아, 이 학교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학교의 시험이 있기 전 학생들에게 일주일의 자유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주를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쓰거나 고향집에 다녀오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작은 그룹이었지만 먼 나라에서 리더라는 책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재발견하는 작업이었다. 결국 말레이시아행은 내 대학생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단단해졌으며 시야가 넓어졌으니 말이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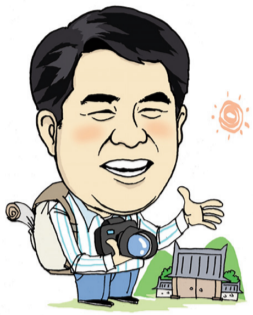


김미현
(정보시스템 4)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첫 학기는 영어 과정을 수료하였고, 두 번째 학기는 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첫 학기였던 영어 수업을 들을 때 중동과 터키에서 온 외국친구들이 다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곧 친구가 되었다. 그들도 나처럼 영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었을 뿐, 그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다. 영어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낯선 처음하는 기숙사 생활, 한국보다 낙후된 시설이었지만 이곳에 살던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나의 가족 같았다. 그들의 방에 놀러 가면 한국드라마나 한국배우의 사진, 한국에 관련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가져온 한국 화장품, 옷 등 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흥미꺼리였다. 두 번째 수료했던 전공 과정에서 모든 과목은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고 UTM의 교육시스템에 굉장히 놀랐다. 말레이시아 현지 학생들까지도 모든 수업에서 영어를 써야 한다. 수업은 힘들지 않았지만 과제로 인해 항상 반 친구들과 노트북을 가지고 도서관을 가야했다. 다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중간고사를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주먹코가 되었다. 내가 여태껏 봐온 대학시험 유형과 많이 달랐고 기말고사 때 피땀 흘리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래도 교환학생 온 사람들 중 성적이 제일 높다는 사실이 날 위로한다. 내가 제일 기억에 남은 세 가지 교내 활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International Culture Festival'이다. 약 15개국, 2천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각 국가의 문화를 알리는 교내 큰 행사였다. 우리는 대학교 부근의 한인회에 연락을 하였고 많은 소품을 얻어 전시회, 음식 시식회, 태권도 퍼포먼스를 페스티벌 때 보여줄 수 있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 모두 고생했지만 페스

티벌이 끝나고 엄청난 수의 많은 학생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아직도 그 기억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두 번째는 한국 전통 한지 공예품 판매이다. 전주시의 자랑거리인 한지 공예품을 판매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졌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생활동회이다. 유티엠에는 한국인이 극소수이지만 국제학생회 측의 협조와 우리의 노력으로 각종 교내행사에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후,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한다.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배우겠다고 많은 나라로 떠난다. 시간과 돈만 낭비한 친구들을 많이 본다. 그에 반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기 탁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중동과 동남아, 유럽국 등 다국가 민족들이 어우러져있다. 거기엔 우리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화와 여유가 공존한다. 나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아랍어를 공부를 할 계획이다. 또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항공사분야에서의 일을 꿈꾸고 있다.



홍성덕교수가 들려주는 '전주·전주사람들' 이야기 ⑫

2012, 임진년 1592년 그 역사수호 정신을 계승하다

임진왜란 때 침략전쟁을 피해 전주사고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을 정음내장산으로 옮긴 뒤 420년 만에, 7년 전쟁이 끝나고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사업이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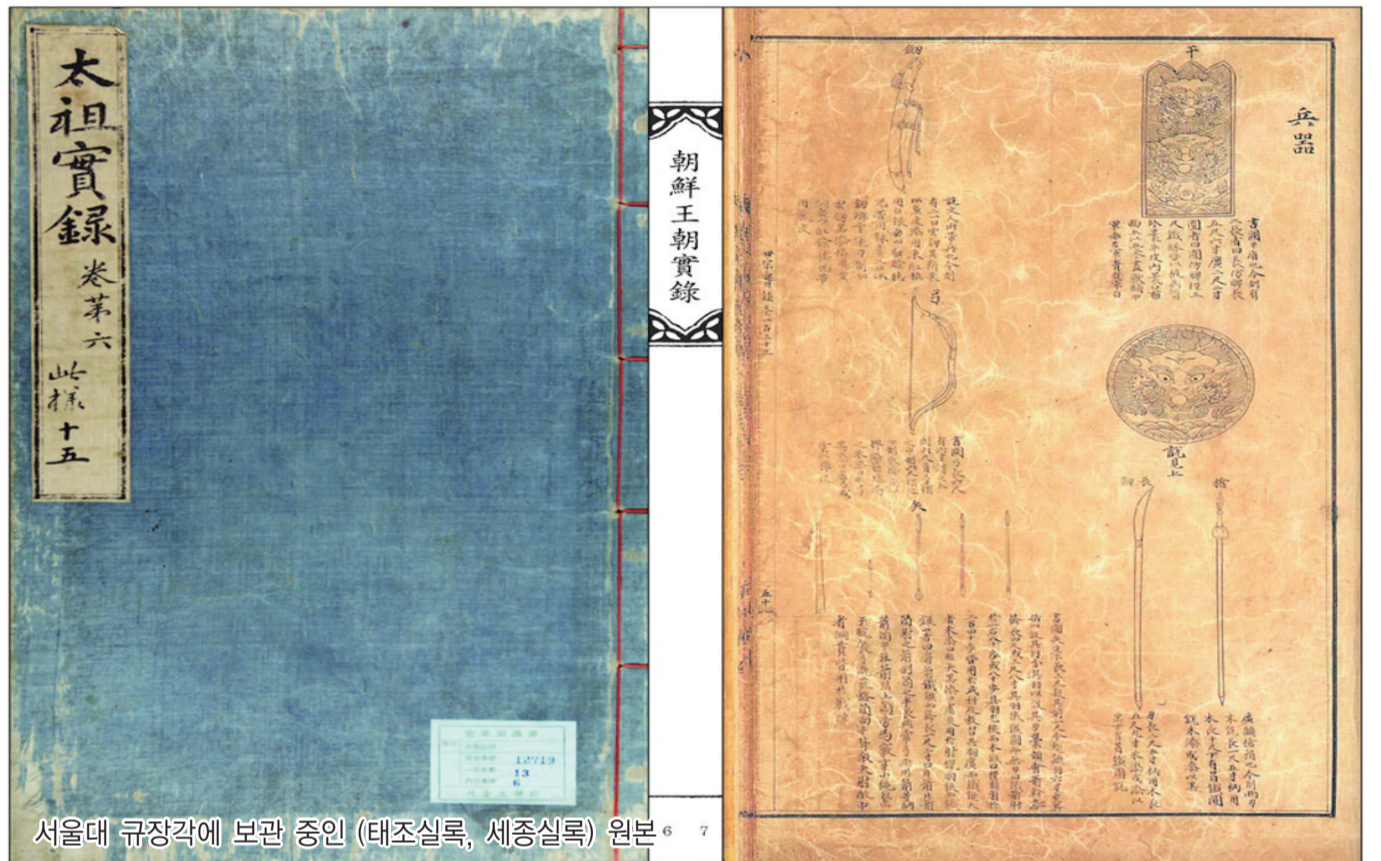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사고본(서울대 규장각), 태백산사고본(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적상산사고본(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이 완질의 형태로 남아있고, 오대산사고본은 일본 관동대지진 때 산실되어 일부만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주사고본 실록은 정족산사고본 중 태조실록~명종실록까지의 실록을 말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전주사고본 실록이 전쟁이 끝난 뒤 정족산사고에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태백산사고본과 적상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은 1603년부터 1606년까지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다시 제작한 실록입니다.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보면 전주사고본은 유일본인 것입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실록과는 달리 검색비단표지로 선장되었으며, 태조실록~태종실록까지는 손으로 쓴 필사본입니다. 영구보존을 위해 밀랍으로 도포한 것이나, 교정 단계에서 오탈자의 접지가 붙어 있으며 조선후기본과 비교해 볼 때 글자의 산입 등이 나타나는 등 유일본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우리 고장의 역사 수호 정신은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1603년 임진왜란이 끝난 뒤 유일무이한 역사로 남은 실록을 다시 제작한 것과 같은 복인(復印) 사업입니다. 1592년 실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친 손홍록과 안의, 오희길 등 이 지역 선비들이 가진 역사수호 정신을 계승하고 아울러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이중보존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정족산사고본 중 태조실록~명종실록까지 총 13대 국왕의 실록 806권 614책을 실록 제작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53,130면에 달합니다. 실록 복본에 사용된 전통한지는 전통한지 장인들이 조선시대 방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번 사업에는 총 3년 동안 24개 업체가 참여하여 3만 8천여 장에 달하는 한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조선시대 실록 제작에 사용된 전통한지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내 전통적 기법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한지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 복본에 사용될 한지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기준에 도달한 한지를 사용한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태조실록, 세종실록) 원본 6 7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우리 고장의 역사 수호 정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으로 계승돼

것입니다. 일례로 한지의 두께는 0.1mm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지폐와 같습니다. 이러한 전통한지의 생산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진 기술에만 의존하여 한지를 제작하는 생산방식을 품질기준에 맞는 주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전통한지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지 장인들은 표준에 적합한 한지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적 노하우를 본 사업을 통해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며,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전통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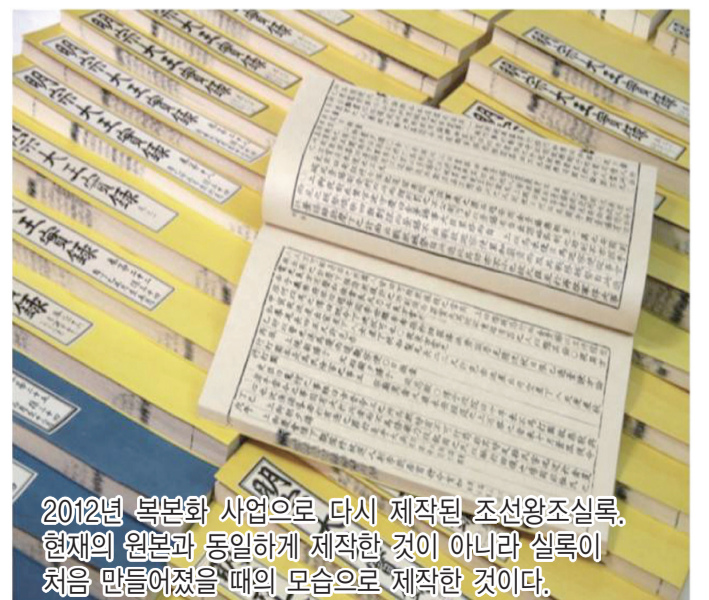
전통한지의 복원이 우리나라 전통한지 산업의 고급화를 선도하였다면, 복본제작의 기술은 첨단 산업을 접목함으로써 대중화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통한지의 현대 인쇄산업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전통한지를 이용한 고급 도서출판의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복본 제작 측면에서는 박물관 전시용으로 한 두 쪽만을 제작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문화재의 이중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전통한지를 이용한 문화유산의 복본제작 시장을 크게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이후 초조대장경 복본 사업이 추진된 것은 고급화한 전통한지 제작기술과 전통한지 인쇄기술의 가능성이 제시되었

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태조실록에서 13대 명종실록까지를 복본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4대 사고와 조선후기 5대 사고의 역사수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선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12대 실록을 복원하여 조선시대 전 시기의 실록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지장인들의 지속적인 전통한지의 기술 표준 향상을 통해 전통기술의 유지 발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이중보존 측면에서도 역사를 수호했던 전주에 21세기 사고(史庫) 설치와 새로운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전주사고는 국가 기록문화유산 중 유일본에 해

당하는 예컨대 조선왕조의궤와 같은 문화자산을 21세기의 기술과 전통을 융합하여 새롭게 제작 보존할 수 있는 역사 기록문화의 메카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 가면 21세기 다시 제작된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2012년 복본화 사업으로 다시 제작된 조선왕조실록. 현재의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으로 제작한 것이다.



취업률 유감

교수칼럼

김창권 교수 (경영학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작년 6.3%에서 작년에 3.6%로 하락하더니 금년 2사분기에는 2.4%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 상반기 취업자수가 작년에 비해 43만 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니 이는 이른바 ‘고용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고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증가 원인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용 증가분의 반 이상은 비정상적인 임시직, 저급 일자리로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여성층이나 고령층이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집박을 나선 결과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전 취업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그리고 기업의 미래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규직 채용 감소, 임시직 채용 증가 전략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인의 한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할 때, 대학을 졸업하는 제자들의 버젓한 직장 취업은 얼마나 어려울까(지난

주 수요일 우리 학교에서 채용설명회를 가진 이랜드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대졸공채에서 3만 5천명이 응시하여 200명 정도가 최종 합격, 175: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함) 그리고 아무리 ‘닥치고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채용된 졸업생들의 좌불안석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지표에 대학취업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걸려든(?) 대학은 곧 부실대학으로 인식되어 입시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뼈아픈 학내 구조조정이 감행될 것이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 실패, 즉 청년실업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있으나, 미래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반값등록금 이슈와 맞물려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너무나 많다. 취업률 부풀리기가 최근 적발된 일부 대학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대학의 취업률 제고 대책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대학의 장기 발전 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예로써 대학의 조교자리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보조원으

로서의 기능은 이미 사라졌고,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전락하여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 임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학 전체로 취업률을 평가받기에 취업률이 낮은 전공에 대한 불만이 구성원 가운데 생겨나며, 교수가 학생에게 기업을 소개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가지 않는 것을 많이 목도함으로써 한계를 느끼고, 학생은 그런 직장(?)밖에 소개해주지 않는 교수에 대한 야속함을 느낀다.

대학은 그 어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 졸업자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학 2월 졸업생들을 6월까지 취업을 시켜야 우수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배양될 수 있겠는가? ‘교육백년대계’라든지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이 기쁨’이라는 논어의 문구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저술 「대학의 이념」에서 ‘대학과 학문이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은 보편적 삶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 상투적인 말이거나 사치가 되어버렸다. 과연 그럴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단선적인 대학교육정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에 기우로 지나칠 수가 없다.

인간 복지의 필수 조건인 하나인 일자리 문제로 인해 역사적으로 인간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니 취업률 유감이다.

사설

일대일 사역은 축복의 통로이다

지난 9월5일(수) 11시 대학교회에서 2012학년도 2학기 개강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이 때 우리대학에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교수 8명과 직원 4명의 제2기 일대일 제자양육자 및 동반자 수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들과 권사들의 도움으로 2009년 12월 일대일동반자 과정이 맨 처음 우리대학에서 시작하여 2010년 9월에 교수 8명의 제1기 양육자과정 수료식이 있는 후, 순수하게 우리대학 구성원들만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일대일 사역의 결실이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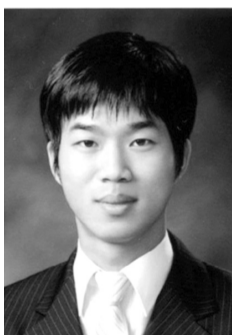
일대일제자양육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다.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나누며, 동시에 인격적인 일대일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골 1:28)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구성원간의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세상적인 학문만을 배우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학이 되게 할 것이다. 제1기와 제2기 양육자과정 수료자 16명은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의 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대학의 전 구성원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우리대학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 28:19) 하는 것이며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하신 주님께서 우리대학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대학은 교육만족도 1위 대학과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일대일제자양육에 동참하여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대학이 되도록 하자.

담배와 술이 없는 대학축제를 기대하며

풍요와 축제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축제를 즐기며 살아간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을 찬찬히 살펴본다면 그 많은 축제에 놀라게 된다. 익산 서동축제(9.20(목)~9.23(일)),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9.21(금)~9.23(일)), 고창 선문문화제(9.22(토)), 정읍 피향정 문화축제(9.22(토)), 고창메밀꽃잔치(9.15(토)~9.23(일)), 전주 세계 소리 축제(9.13(목)~9.17(월))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있다.

축제의 원래의 목적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며 인간의 솔직한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년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 그리고 로마의 겨울축제 등에서 기인하며 바로 인간 생명 메커니즘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 고리를 자축하고 또 기원하는 인간의 관습이었다. 뒤르켐(Durkheim)에 따르면 축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종교적 행위’이다. 뒤르켐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특정한 종교가 아닌 보편적인 의미의 종교인 사유체계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축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고민이 없이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만을 답습하는 축제는 축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축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축제의 역할은 사회적 통합과 평소 할 수 없었던 일을 실현하며 소홀했던 공동체의 유대 의식이 강화되는 공간이다.

이제 우리대학도 9월26일(수)~28(금) 대학축제가 열린다. 우리대학의 축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절제한 음주 가무는 진정한 대학축제의 의미라 할 수 없다. 특히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대학내의 축제는 더욱 더 그렇다. 평상시 할 수 없었던, 같이 뛰고, 같이 놀고, 같이 노래함으로써 대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너와 나,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로서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인 우리대학 내에서 술과 담배, 쓰레기가 없는 가을 축제를 기대해 본다. 분명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땀을 흘릴 때’

희망칼럼

김우상 직원 (학생지원실)

라는 숙제에 빠져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큰 취업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기위해 전주대학교의 많은 부서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언제든지 학생들을 도와주기위해 학교의 문은 열려있다! 고민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라는 말씀이 있다. 사과가 먹고 싶다고, 사과나무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직접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알아서 와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전주대학교에는 학우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여 함께 취업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 나가자.

有備無患(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 대학시절 때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는 미래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기회는 늘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책을 보다 이런 문구를 보았다. “Impossible 불가능이지만 여기에 내가 땀방울 하나를 흘리면 I 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지금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나의노력을 믿고,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면 반드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것이다. 인생에는 시기가 있다. 지금 우리는 땀을 흘릴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청년의 때에 땀을 흘린 자만이 장년의 때에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힘이 드는가? 몇 년 뒤에 웃고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아보자. 열심히 땀을 흘리면 몇 년 뒤에는 풍성한 수확을 한 농부처럼 땀을 닦으며 웃고 있을 것이다. 전주대학교학생들이여 화이팅!

“청춘”이란 말은 언제나 설렌다. 청춘을 느낄 수 있는 캠퍼스에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 곡식이 익어가며, 과실이 열매 맺는 가을이 성큼 찾아왔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풍성이 익어가는 곡식을 보며 우리인생과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울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긴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 곡식들이 무르익기 힘들었지만 그 고난들을 모두 이기고 나온 열매들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우리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것들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날이 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취업이라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어, 그 숙제를 풀기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등으로 누구보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낭만을 즐기는 세대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즘 대학생에게는 낭만은 찾아 볼 수 없고, 취업이



■ 21세기 아는만큼 보인다 / 인문학의 정신과 참 행복에 이르는 길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을 이해하고 ‘사랑과 배려’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김승종 교수 (인문대학장, 인문과학종합연구소장)

■ 김기덕 감독 ‘피에타’로 베니스에서 날아오른다.



2012년 9월 들어 가장 경사스러웠던 국가적 쾌거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제6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이다. 한국 영화가 이탈리아 베니스국제영화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독일의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 중 베니스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라고 한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머물던 시절인 25세 때 프랑스인 추기경의 주문으로 제작한 것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는 끔찍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남자 '강도(이정진 분)'의 이야기이다.

피부가 하나 없이 외롭게 자라온 그에게 어느 날 '엄마'라는 '여자(조민수 분)'가 불쑥 찾아온다. '강도'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혼란을 겪지만 마침내 그는 '여자'를 엄마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녀를 향해 정을 쏟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이 '여자'를 해칠 가능성이 생기자, 그는 잔인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돈을 뜯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강도'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루하루 엄마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감에 따라 놀랍게도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된다. 결국 정말 엄마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이 보는 가운데 추락사한 이후 그녀와 그녀의 친아들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강도는 절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내던진다. 일종의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점은 황폐한 내면을 지녔던 '강도'가 모정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에 있다. 그야말로 악마와 다름 없었던 그가 긍정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그가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죄와 벌, 속죄와 구원에 대한 김기덕 감독 특유의 음울하면서도 중량감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가 파괴될 경우, 인간의 내면은 끝없이 황폐해지다 못해 악마와 다름 없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죄악에 찌든 구제불능의 인간이

라 하더라도 그에게 사랑과 배려의 눈을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나 일탈자들에게 진 배려의 손길'이며 그러한 정신을 기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말의 목적을 하는 학문이다.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인물이지만 그가 이 세상에 일정한 기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나간다면, 심지어 선하거나 악하거나 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소중한 가치를 '피에타'에 등장하는 '강도'의 존재이며, 거꾸로 우리들은 '제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나 일탈자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물론 그들을 제대로 보살피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거나 일탈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거나 외면하며, 일탈하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킨다. 그러나 안전한 방식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치당하거나 격리당한 이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사회 구성원들을 향하여 오히려 적대하는 대로 자신을 버린 그들을 향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리 시스템이 아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배려의 손길'이며 그러한 정신을 기

■ '인문학'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 사람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Humanities)'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배려의 손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 자신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손길이 미치게 되면 새로운 삶
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

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안으로 하는 '인문학'이다.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
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인간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죽을 목숨
간 동안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
학벌이 높건 낮건, 부유하던 가
상관없이 인간은 저마다 인간으
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
역시 당연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
'2의 강도', '제3의 강도' 가
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오하
풀지 않는다. 나오한 이들은 방
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나 이는 너무나도 야비하면서도
로 해결하는 길이 결코 아니다.
절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거나
일을 따돌리고 억누른 사회와 그
개심과 분노를 키우고 기회가 닿
더 큰 보복을 자행한다. 그들을
따라서 엄격한 처벌 제도나 격
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배
으로 하는 것이 '인문학' 이다.

게 만들고, 이어서 주변의 다른
다른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부터 자신이 '인문학과 무관한 존재'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잠잘 곳과 먹을 것을
확보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철학이나 역사, 문학, 심리학 등을 공부
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박물관이나 공연장을 방문할 기회도 거의
없다.

정부 역시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지만 이들에게 인문학을 교육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
각하며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를 경찰력이나 교도행
정, 혹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거니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한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사람이 변
해야 한다." 거센 바람은 두텁게 입은 옷을 벗기지 못하지만, 따듯
한 태양은 저절로 두터운 옷을 벗게 만들 수 있듯이, 강압적인 제
도는 물론, 사회복지정책조차 그들의 일탈적 행동이나 자포자기적
태도를 일시적으로는 억제시킬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인격 자체를 변
화시킬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이들이 결
국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인문학'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이어서 주변의 타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마치 영화 '피에타'의 '강도'가 엄마의 고통
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비로소 함
께 느끼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의 형극과도 같은 속죄의 길을 스스
로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참 정신이며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근원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속에서 민중 대다수가 겪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선조들은 그 '고통'을 해결하
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수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한다. 문학 작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고통의 기록'이다. 가난
때문에 혹은 소외와 파괴된 인간관계와 내면 때문에 고통 받는 이



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먼저 타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고 자
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성숙해 간다. 철학 역시 '고통의 근
원'에 대한 끝없는 탐색에 다름 아니다. '죽음'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고통을 성찰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궁극적 목적에 해
당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이자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의 원조 격인 얼 쇼리스는 "인문학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시무시한 권력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일상
을 자율적이고 자신감 있게 이끌어 준다."고 하였다. 틀에 박힌 삶
의 틀을 깨고 인간적인 삶,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인문학은 학생이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
자들 역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시민인문학강좌사업'은 〈희망의
인문학〉에서 얼 쇼리스가 제창한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존중 및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개인의 삶의 개선 및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
의 장을 지역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넓혀 나가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 이공학
도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사업단은 군부대, 산업체, 교도소, 빈곤층, 미혼모, 소외 계층 등 다
양한 사회 계층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
여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이 위탁 교육을 받게 된 경위
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래 다니던 학교로부터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추방되었거나 소외된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
치', 곧 '사랑과 배려의 정신'이다. 9월 21일 11시에 개강 예
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는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길 소망해 본다.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
행복에 이르
게 하는
길'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코아·리베라 그룹회장 이창승 장로를 만나다.

“창조적 파괴”란 열린 생각을 갖자는 것이며 기존의 것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자는 것이며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9월17일 ‘창조적 파괴’라는 주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특강을 해 준 전북지역의 성공한 CEO 전북 중앙신문사장, 코아·리베라 호텔 이창승 장로를 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준비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 편집자주〉

-지난 9월 17일 ‘창조적 파괴’라는 주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

▲ ‘창조적 파괴’는 경제를 전공한 학생들은 한번쯤 책을 읽거나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경제발전론을 통해 그 개념을 소개하면서부터 경제 분야 전반에 많은 화두를 던져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혁신으로서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파괴 과정이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란 열린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인 것입니다. 결국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통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돼’ 하는 생각이 학생들이 갖는 고정관념입니다. MP3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제도를 깨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힘들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두 달 짜리 인턴사원을 뽑는데 취업문으로 다가서는 ‘스펙’ 쌓기의 연장선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을 봤습니다. 정식사원채용도 아닌데 반듯하게 주름세운 양복차림에 불끈 권 주먹을 양 무릎에 가지런히 얹

고 바짝 긴장한 얼굴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그들에게서 취업 한파의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올 정도로 실업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용상황은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너’ 아니면 ‘나’ 일수밖에 없는 실업에 대한 질문에 국가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좀 더 기다려 보고 자기 전공 분야에 들어갈 것인지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 보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도는 하나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먼저 내갈 길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검증하는 일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고민 고민 해줘도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해가 가는 해의 끝자락에 있듯이 희망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월급쟁이에 연연 하지 마십시오. 도전 하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학생들은 젊지 않습니까?

-전 한신대학교 이사장 전 전주시장 그리고 현재 전북 중앙신문사장 코아·리베라 호텔 회장 등 성공한CEO로서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으신데 성공하기까지의 노력과 과정을 소개 하신다면...

▲CEO,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CEO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어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오를 수가 있었을까? 나도 저 자리에 오를 수는 있을까?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참하리만치 좌절과 시련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걸으로나 실제에서나 다 같이 만족할 만한 CEO인가 의문을 던져 봅니다. 남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

한민국에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한 CEO로 쳐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는 말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나 들소를 잡을 때나 혼신의 힘을 다해 사냥을 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잭웰치나 빌게이츠 같은 CEO들의 자전을 읽어 보시면 얻어지는 게 많을 것입니다.

-전북 소재 CEO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대기업에 취업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토익점수를 올리셔야 합니다. 대기업은 자격요건을 정확히 정해 놓아서 그 선에 못 미치면 서류전형도 통과 못합니다. 가능하면 입시원서를 꼭 채울 수 있도록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성의 없는 자기 소개서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꼭 권하고 싶은 말은 대기업에만 목매달지 말고 우리 전북에도 탄탄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생각을 가집시다.

-전주대학교는 호남 유일의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건 총장님을 비롯한 전 대학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기도 하며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전주코아 교회 장로로서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기 위한 전주대학 발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

▲진부한 얘기지만 대학은 고급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창조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대학의 역할은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면서 공헌하는 곳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사회적 능력을 선도하고 혁신의 싹을 튀우길 기대를 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멀다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학에게 기대 해왔던 고

급 지식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공급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변화를 응변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학습의 지가 높고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많은 전문지식까지 무료로 학습할 수 있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 흐름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경향은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대학이 직면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훌륭한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전주대학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주대학을 위해 발전기금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학점, 공인 영어 성적, 자격증, 각종 공모전 등등 대학생들의 대부분을 쏠아 붙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학년은 물론 신입생들조차 대화 주제는 취업 관련 스펙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스펙 쌓기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간에 정체 돼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어렵더라도 새로운 문물을 경험 하는데 주력을 해 보십시오. 세계 속에서 우뚝 서있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압박은 무엇이겠습니까. 취업이겠습니까. 당신들 보다 훨씬 못배운 김기덕 감독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적성순’이라는 걸 김 감독이 증명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 성공에 이른 김경숙 학생



도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분명한 것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흘린 땀은 나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는 알맹이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도전없이 성공없다’고 외치며 달리는 학생이 있다. 만학도로서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동기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김경숙학생(생활체육,3)은 마라토너로서 도민체전과 전국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경력을 다지고 있다.

금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철인 3종 경기라 불리는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김경숙 학우를 만나 무엇이 그녀를 끝없는 도전으로 이끄는 지 들어보았다.

-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했다고 들었다. 경기이름이 생소하다



“흔히 철인3종 경기라고 불린다. 바다수영 1.5km, 도로 사이클 40km, 10km의 마라톤으로 구성된 종합 경기이다. 세 종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도전하는 경기이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전 세계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도전한다는 종목이다.”

- 굉장히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1학기 종강 후, TV에서 행사 광고 한편을 보게 되었다. 8월12일.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우리고장 부안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광고는 7월 한 여름날의 더위를 날려 버릴 만큼 나를 유혹하여 도전하게 만들었다.”

- 적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물론이다. 그러나 나는 도전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다. 마라톤은 평소에 해 온 운동이었고, 수영은 10년 전에 생활체육으로 몇 년 동안 기초과정을 마친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사이클이었다. 약한 달간의 짧은 시간인데..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더군다나 내 주변에 트라이애슬론 경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수소문 끝에 광주 철인클럽에 수습 차례가 넘는 전화 문의로 장비 구입과 훈련방법을 도움 받았다. 수백만 원이 넘는 사이클과 슈트 수영복, 옷, 신발 등을 구입하여, 새벽 2시간 등산, 오전 수영 훈련, 오후 사이클 20km 및 마라톤 훈련을 반복했다. 익숙하지 않은 사이클을 연습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언덕 훈련을 할 때는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드디어 8월 12일, 오전 8시6분, 바다 속으로 몸을 던져 1.5km의 수영을 하고, 긴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는 40km 코스를 사이클링하고, 마지막 코스인 오르락 내리락 해변 도로 10km를 완주하여 드디어 골인에 성공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행복한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었다.”

- 이미 마라토너로서 이름을 떨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평범한 주부였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 여유가 생겨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찾은 것이 바로 마라톤이었다. 남편과 영덕로하스 10km마라톤을 시작으로 해남마라톤, 서울 동아마라톤 풀코스, 장성마라톤 등에 참가하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달리는 순간은 턱 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면서 ‘러너스 하이’ 라는 쾌감을 경험한다. 마지막 Finish line을 밟는 순간의 희열은 달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인생에서 그 어느 것도 철저한 준비와 열정적인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이다. 마라톤을

하기 위해 평소 음식 조절은 물론 체중 관리를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해야 한다. 전국 각 지방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다보니 우승과 준우승등의 상장과 메달들이 책상위에 보너스처럼 쌓이게 되었다. 또한 상반기에는 정읍시 대표로 선발되어 도민체전 여자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3위를 하였다.

-한 편의 인간극장을 보는 것 같다. 도전의 연속이 감동적이다.

“또 다른 도전은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편입하면서 시작된다. 40대 후반의 나이로 그런지 소설보다는 수필이, 드라마보다는 인간극장을 즐겨본다. 언젠가 80대 할머니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I have a dream”을 암기하면서 외국인과의 자연스런 영어 회화 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몇 날을 고민했다. 마라톤을 통해 인생을 다시 배웠다면 대학교 편입을 통해 운동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기로 하였다. 그 나이에 무슨 학교? 그냥 편하게 살지, 옆에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전하기로 했다. 정읍에서 통학하며 살림하라, 임용고시 준비하는 딸과 남편 뒷바라지 하라. 참으로 바쁜 1학기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앞으로의 생활체육지도자의 꿈을 위해 보디빌딩 생활체육지도자 3급에 도전했다. 실기시험과 구술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와 필기시험까지 최종 합격하여 이제는 자격증을 받는 일만 남았다.”

- 갑자기 기자의 안일한 생활태도가 반성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게 된다.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은 도전해야 한다. 도전 없이는 목표 달성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책이 읽은 적이 있다. 내 인

생에서는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일까?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오늘, 그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초라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분명한 것은 노력하는 과정에서 흘린 땀은 나를 더 단단하게 채워주는 알맹이가 될 것이다.”

-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늘 맹호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작년에 남편과 함께 무박 15시간 일정으로 36km에 이르는 지리산을 종주했다. 천왕봉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가지고 다닌다. 이들이 나를 행복한 카타르시스로 안내하고 또 도전하게 한다.”

김경숙학우는 앞으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약하나 전주대학교를 위해 뛰고 싶다.”며 거듭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로고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



겨자씨



류두현 교수
(환경보건전문)

직업과 신분의 차별이 심하던 시절에 장터 푸줏간에 양반 두 명이 고기를 사러 왔다. 먼저 온 양반이 고기를 주문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네 나리” 백정은 솜씨 좋게 고기 한 점을 싹둑 베어 주었다. 두 번째 양반의 차례가 되었다. 이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라도 나이 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고맙습니다.” 하고는 공손하게 고기를

물실 잘라 주었다. 그런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 두 번째 양반이 받은 것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그 양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이 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백정은 대답했다. “네, 나리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요,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예화이다.

요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자기 개발의 주제 중 하나가 남을 설득하는 법, 즉 말 잘하는 법이다. 말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서적이거나,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 설득하는 법 등을 예시하는 책들을 읽고 있으면, 마음 한군데가 허전하고 아직도 말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고 말씀하고 있

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너무 적게 섭취하여도, 너무 많이 섭취하여도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소금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되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는 말씀이다. 사람들은 하루에 2, 3만 단어를 이야기하며 소통한다고 한다. 수없이 내뱉어지는 말 중에 의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될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니 각자의 말과 말의 뿌리인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각자가 뱉은 의미 없는 말들로 인해 심판의 날에 각자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하신다 (마 12:33-37). 오늘날의 언어 중에 선하고 은혜로운 말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광풍 속에 큰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와 같이 우리 입속의 한 치 혀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한다 (야 3:3-6). 작은 불씨가 큰 불

을 일으키듯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우리도 친구들과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서로의 진심을 오해하고 상처를 주어 서먹한 인간관계로 바뀐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항상 수없이 뱉어진 말들을 후회하며 주위 답을 수 없음을 한탄하기도 한다. 말에 재갈을 물려 주인의 뜻에 따라 조정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의 홍수시대에 텔레비전의 인기프로도 말과 말이 오고가며 각자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연예프로그램이 대세인 세대이다. 제어되지 않은 비수 같은 말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촌철살인이라고 칭찬받기도 한다. 비속어를 섞지 않고는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오염된 시절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그렇게나 앙망해 온 메시아가 곧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자신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대표적인 집단이 바리새인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메시아가 빨리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고 외쳤다.

▼ 에센 무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스라엘 사해 주변 쿨란(Qumran) 동굴들에 모여 살던 무리들인 에센파(Essenes) 역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로 헌신한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꿈,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를 담아 기도문을 작성하였다. 카디쉬 기도와 18번 축복 기도가 그러하다. 유대인들은 유대 회당에서 설교 끝에 짙막한 형태의 기도인 카다시 기도를 다 함께 낭송했다. 또한 하루에 세 번, 아침과 오후와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반드시 18번 축복 기도를 드렸다. 이때,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할 것’을 외친 ‘광야의 선지자’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다. 그의 메시지 중심은 ‘회개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것, 곧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다. 요한 역시 자기의 종말론적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다(눅 11:1).

▼ 제자들이 바라 본 예수님은 다르셨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다. 이방 사람들처럼 말을 반복하고 많이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나 불로 임하실 심판을 강조한 요한과는 달리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그 분이, 하나님 공동체의 본질적인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걸어야 할 영적 여정의 로드맵이 되는, 참으로,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눅11:1),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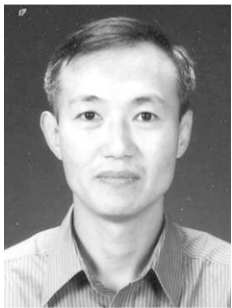
/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삶이 주는 시험

(마 4:1-11)



이신형 목사
(기독교학과)

예수의 삶의 시작과 끝에는 시험이 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것과 십자가가 그것이다. 광야로 예수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십자가로 예수를 인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광야와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 시험을 받는다.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인 예수는 성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탄과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다.

예수가 받은 시험을 사람들은 메시아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광야에서 예수가 받은 시험은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메시아로 결단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가 받은 시험은 메시아의 자격을 규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시험을 받은 것이다. 예수가 받은 시

험이 메시아의 자격시험이라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시험이라면 우리와 관계가 있는 시험이다. 시민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라는 시험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하지만 예수의 육체는 극심할 정도의 굶주림에 시달렸다. 사탄의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유혹이다. 또한 본능적 충동이다.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밖에서 속사이기에 유혹이다. 안에서 발생하는 욕구이기 충동이다. 예수는 유혹을 이기고 충동을 억제한다.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능력은 있으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능력은 없다는 것은 천명한다. 예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나 자신과 제자를 위해서는 굶주림을 택하신다.

예수가 받은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은 교묘하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적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이며 충동이다. 광야에서 받은 예수의 시험은 예수의 삶의 마지막에 받은 시험에서 절정을 이룬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자임을 입증하라고 군중들이 외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왕으로 추대하려는

대중들의 열광도 거부한다. 사탄의 시험은 달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고 속삭인다. 실상은 내면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세 번째 광야에서 예수가 받은 시험은 사탄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광야이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 3년의 시간에 예수가 받은 시험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예수는 유대교 종교지도자와 유대총독 빌라도에 복종하라는 시험을 받았다. 예수는 복종해야 할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분뿐임을 천명하고 거부한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 십자가는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을 거부한 길의 끝에서 만나는 운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시험을 받는다. 예수처럼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는다. 자본주의와 결탁한 한국교회의 축복 사상이 물질적 가치, 낮은 가치를 지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정말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가 선언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초월하는 삶을 지향할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울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참된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진리를 따라서 부당한 권력과 낮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참된 권위에만 복종할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첫 사랑’으로 시작하는 9월 채플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지난 11일(화) 첫 채플의 문을 열었다. 이번 채플은 그 동안의 채플과 달리 홍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교내에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채플을 알리고, 채플 당일 날에는 채플 장소 앞에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X-배너도 설치하였다. 첫 채플의 주제는 바로 첫 사

랑. 부흥채플 말씀 담당인 권복음 전도사(선교지원처)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돈, 차, 외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 봐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된다.”며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랑한다면 자신의 것을 주어야 한

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첫 채플에서는 이번학기 채플의 커리큘럼이 기재된 책갈피를 나누어 주어 채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채플에 대한 기대감과 요청사항 등을 조사했다.

금요일엔 중보기도로 모입니다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카운셀링센터(학생생활관2층)에서 전주대학교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담당 교역자로는 권복음 전도사(선교지원처)가 담당교역자로, 하혜숙 교수(상담학과)가 중보기도팀장으로 섬긴다.

권복음전도사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매주 권복음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혜숙 교수의 인도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기도시간 후에는 아침식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문의 : 하혜숙 교수(010-6434-3429) / 권복음 전도사(010-7340-7712)

전발협 실무자 모임

선교지원처(장선철 처장)는 지난 5일(수) 전주대학교 발전 목회자 협의회(전발협) 새 조직 구성을 위한 실무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고건 총장, 장선철 처장, 이석현 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진안, 김제, 완주 지역 등 현재 전발협이 미조직된 전북지역으로의 확대를 논의하였다.

학생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성황

학생생활관(장선철관장)은 지난 6일(목) 학생회관 3층 대강당에서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약 600여명의 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관 안내와 수칙교육, 관생자치회 임명장 수여, 생활관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고건 총장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의 말씀을 통해 인성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생들이 공동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

뜨겁게 기도하는 아침, 화요일아침 기도회 개강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2학기 첫 화요일아침기도회를 11일(화) 오전 8시 진행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김승수 목사는 누가복음 5장 1절~11절을 본문으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고기 잡는 기술이 없었던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신 것은 예수님이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물에 물고기

들을 집합시키신 것.”이라며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강조했다. 말씀 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캠퍼스의 부흥과 우리 대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학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 했으며, 김승수 목사의 축도로 끝을 맺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15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임실 전발협 구성을 위한 간담회

선교지원처는 지난 14일(금) 11시 30분 관촌 사선대에서 임실 전발협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전발협 실무자인 오성택목사(전주 전발협 총무), 이석현실장(선교지원실), 오영진(선교지원실) 직원과 함께

임실지역 목회자인 박원종 목사(연합회장) 외 1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실지역 목회자들에게 전발협 구성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전발협 구성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선교동정 | 장선철처장

- 09.10(월), 비전컨퍼런스 특강
- 09.12(수), 마한교육문화회관 특강
- 09.13(목), 장흥교육청/ 장흥목회자세미나 특강
- 09.14(금), 서울 갈보리교회 특강
- 09.21(금), 전주유화학교 특강

< 1대1 제자양육 간 증 문 >

하나님의 학교에서 사역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전호진 교수 (외식산업학과)

전주대학교에 임용을 받고 1대1 제자양육이라는 내용을 알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양육 받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교육을 받는다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학과에서의 가장 후임으로, 또 바쁜 업무와 과정에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각했던 내 오만함은 양육을 받는 그 시간의 은혜로도 깨끗이 씻겨 나갔다.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는 것으로 자만하고 오만했던 내 모습을 일대일 양육과정을 통해 바꿀 수 있었고 또 은혜를 받는 과정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양육자 교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과 늦은 저녁까지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양육과정 내내 인자함으로 대해주시는 말씀하나 하나에, 나 또한,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데 소홀했던 최근의 모습을 반성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듯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특히, 교제를 통해 믿음에 대해 더욱 깨우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자칫 안일해져 가는 내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의 본분을 잊고 세상의 것들로 생각하고 고민하였고,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전하지 못하는 지난 학기들을 그저 반성할 따름이다.

학교에서의 업무에 대한 무게감과 임용되자마자 일어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모두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 최근의 삶을 돌아보시게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고 양육과정에서 배우고 깨우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다가가는 내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아 양육 받는 날 만큼은 적어도 마음의 은혜가 가득 차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친밀하게 한다는, 어찌 보면, 주일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최근 이마저 진실되지 못했던...나... 첫째 예은이의 출산이후에 몸이 좋지 못한 아내와 최근 둘째아이의 유산으로 마음을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살았고, 기도가 부족했던 나...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셔서 진실 된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양육과정에

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나님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할 줄을 알게 되었고,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나의 상황이 좋을 때나 그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통해 성령이 충만해 질 수 있도록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양육과정에서 받은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였다. 일대일 양육과정과 기도를 통해 아내도 더욱 건강해 졌고 우리가정도 유산의 아픔에서 깨어나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깨달으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양육과정을 통해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봉사의 손길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전주대학교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 다가가며 하나님의 학교에서 사역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近日，围绕中日钓鱼岛领土争端，日本政府导演的“购岛”闹剧，注定终究是一场闹剧。是徒劳的，因为它无法改变钓鱼岛的现状，更无法颠覆中国人的信念。

当日本不顾中方交涉于9月10日宣布“购岛”计划以来，中国官方在第一时间发出级别最高、也是最强烈的抗议，同时，及时公布和向联合国交存了钓鱼岛领海基线声明及海图并派出海监船开展维权巡航执法。这显示了官方的决心，也为下一步的反击做了充分的准备。

没有谁会怀疑祖国遭受欺侮时涌动的爱国激情，没有谁不能理解当祖国遭遇挑衅后同胞们的愤怒与抗争。因为，一个没有血性的民族注定要被欺凌，一个永远韬光养晦的国家必然受气挨打。但是，有一个残酷的问题，我们不得不面对！——靠那些丧失理性的行为，我们可以保卫钓鱼岛吗？

据报道，国内15日全面爆发大规模反日示威，北京、上海、西安、青岛、长沙、重庆等52个城市大批市民响应网上号召上街，部分地方传出民众闯入、破坏日资商店的事件。据日本媒体报道，长沙日资商场平和堂遭打砸，部分商品遭哄抢。青岛部分示威者割破玻璃闯入吉之岛商店，破坏设备并抢掠；

羞愧的“爱国者”之路

名保钓，实误国，亲者痛，仇者快



成都多家便利店、东莞也有多家日本料理店遭到破坏。

所谓“中国人一天不买日货，日本一半以上的工厂就要倒闭；中国人半个月不买日货，日本人整个工业支柱就要彻底垮台”的宣言，不过是血脉贲张的幻觉。地球村下“绝缘”作用能有几何？而一大群人围住同胞的合法财产，貌若“大义凛然”地破坏，除了让法治文明蒙羞，只会让他饱受其害的手足受伤。一大群人围住在华的日本公民，看似“同仇敌愾”地讨伐，更是自降身价的冲动，正中日本右翼政客千方百计挑起事端的下怀。

有日本媒体幸灾乐祸地称中国抗日陷入“暴徒化”，并预测会给中国社会带来动荡。这也让石原之

流找到了鼓动的口实。理是理，非是非。失去理性的暴行，这与日本政客的蛮卑鄙行径又有何异？丧失理智的拳头，吓不走嚣张的恶犬。泄愤式的“爱国”表达，却只能让贼人偷笑、外交被动、同胞伤心。

理性爱国才是真正的爱国。理性爱国首先是合法爱国，而不是违法爱国。违法爱国不叫爱国，叫害国。你有抵制日货的权利，但你没有打砸日货的权利；你有烧毁自己日货的权利，但没有烧毁他人日货的权利。抵制日货值得提倡，但要做到：不砸车，不毁店，不伤人。总之，保持理性，有序抗日，做一个真正的爱国者。

“得道多助，失道寡助。”捍卫祖国的核心利益，是一场正义与丑恶的交锋，我们不屑与无赖的日本右翼为伍，但更不能陷入抗争的误区。全球化的今天，我们应让世界看到，和平崛起的中国，政府治理在进步，国民素质在提升。大时代需要大国民，日本右翼最惧怕中国国民意识的觉醒。理性爱国，奋力强国、精心治国，才能真正捍卫国家和民族的尊严。

（注：本文部分内容引自网络）



人生旅者



毕志鹏

大学院·韩中通商

人生就像一场旅行，不必在乎目的地，在乎的是沿途的风景和看风景的心情。最美的风景总是在路上。沿途的风景，经历了才觉得美丽。人在旅途中，有时会遇到层峦叠嶂的大山；有时会遇到芳草萋萋的平原；有时会遇到波涛汹涌的江河；有时会遇到碧水如镜的湖泊。也许要经过姹紫嫣红的花园；也许要穿越渺无人烟的沙漠。在不同的景色中漫步，在不同的道路上前行。面对沿途的风景，赞美还是感叹？振奋还是气馁？跨越还是后

退？这往往取决于旅行者看风景的心情。我们试图躲过坎坷，但是又好像只有经历了坎坷之后才能见到更美好的风景。就这样，我们跌跌撞撞经历风雨之后才能见到美丽的彩虹。那时的我们总会扬起嘴角感叹着美好的风景。只有经历了才能知道风景的美好，才发现只有经历了才能尝出人生真正的味道，感叹生命的美好。试想一个人一生平坦没有坎坷又怎会知道生活中也有挑战，怎会知道生活也需要各种调味品才会烹饪出美好的味道。在人生的道路上穿行，有的人根本就不知道前面的方向，在雾霭中摸索前行，这里有汗流浹背的拼搏，那里却有不甘失败的掠夺。这里有默默无闻的奉献，那里却有奸商大喜功的吹嘘。金钱名利如同娇艳的罌粟花，总是招人喜爱。欺骗的伎俩往往穿着华丽的外衣。人们开始怀疑，怀疑身边的人，宁愿相信时间上只有骗子是真心对自己，因为他不是真心想骗自己。

风景美好与否都只是在人们看风景的心态。当遇到美好的事物，成功或是喜悦我们都会觉得身边的事物是多么美好，但是当生活不是那么美好的时候，我们就存在于灰色空间，一切都变得死气沉沉。就像音乐，当人们欣赏它时它是美好的音乐，而人们讨厌它时它

却变为噪音。这一切只在于人们的心态。平静之心就像纯洁透明的天空，没有丝丝乌云侵扰；就像一泓清澈见底的池水，没有点点杂质污染。平静之心是白莲的芳香，淡雅而悠长；是春日的阳光，柔和而温暖，让心灵之舟停泊于这样宁静的港湾，实在让人惬意。就像大雨过后彩虹出现，安抚那颗被闪电雷鸣吓坏的心。

人生就像一场旅行，不必在乎目的地，在乎的是沿途的风景和看风景的心情。是一种境界，而不是娇柔做作，不是只喊出来的一句话。面对生活只有保持平静的心态，拒绝轻浮，才能老老实实做人，踏踏实实做事，得而不乐，失而无忧，成功时不骄傲，失败时不气馁。那时的风景是美丽的。我们要保留着那份心情，一份欣赏美丽风景的心情。风景在于用什么心情欣赏，人生存在着很多风景就像去世界各地旅游，风景不一样，我们感受到的一切也就不一样。我们需要的是对生活的期待，对美好生活的渴望。风景，存在于每个我们可以感受到的地方。风景是否美好？需要我们用心感受。请记住——人生就像一场旅行，不必在乎目的地，在乎的是沿途的风景和看风景的心情。

风景，一直在路上……

心灵鸡汤

请不要轻易的批评他人的行为，因为别人的生活发生了什么，他们正在经历着怎样的波折与离奇，站在自我立场上的你可能并不知晓，你所看见的只是表象而已。因为我们还没有足够的智慧，去知道他人的内心潜藏着怎样的忧伤？他脆弱的心灵，正在承受着怎样的煎熬？也许他表现出满不在乎的样子，或者，甚至是桀骜不驯——那只是他没有勇气，也没有智慧能够看到自己！

一个真正的有修养的人，不需要这样的快乐，只需要与本性合一的快乐！从本性上说，我们原本与众生，同源一体，我们批评他人，岂非是在谴责自己？我们谴责自己，又怎能和自己合一？

不要轻易的揭露别人的弱点，因为我们还没有足够的智慧，知道他的弱点是怎样形成的，也不一定有足够的智慧，去帮助他们改变弱点。

轻易的揭露别人的缺点，而不去治疗，就好像在玩弄对方的情绪那样。一个真正的有文化修养的人，不应该是这样的心态，有这样心态的人，只是不圆满的颠倒妄想的凡夫而已。当然，也许他对你的治疗丝毫不能接受，因为每一个人，都有自己的头脑，他不能在他的头脑里，理解你想要帮助他的方式。这时，你要去原谅他。

太喜欢揭露别人，可能是因为“自我”在内心深处，感受不到别人经历的苦楚。这正如井底之蛙的故事，站在井外的青蛙，强行的对井底的青蛙指出外面的世界，这只是一种没有智慧的方式。

一个真正的有文化修养的人，能够用“包容心”去成就别人，其实是在成就他自己。一个从“现象”中，就能得知自己怎么解脱的人，才是真正的懂得自我修养者。

一个真正的懂得自我修养者，当知“语之用与害”。用心经历他人的痛苦，正如经历自己的痛苦那样。只有经历最多的人，才知道在每个情绪的状态里，应该给予对方什么，才能帮助对方迅速地成长。

有些人太过于傲慢，太相信自己理解的事物，这样的人确实不该鼓励他。但如果，你认为用批评和揭露的手段，可以使得对方进步，那除非你们是“师徒”关系，或者你可能要做好牺牲两者关系的准备。因为这种激烈的沟通方式，往往会换来对方的反击，让你的“正确的批评和揭露”的效果大打折扣。

邱琦轩 (201211669) 语言研修 2级班

Bible Devotion

“What Should Our Christian Slogan Be? – Love One Another!”



by Scott Radford

A Christian psychologist tells of a wife who came into his office full of hatred toward her husband. "I do not only want to get rid of him, I want to get even. Before I divorce him, I want to hurt him as much as he has me." The doctor suggested an ingenious plan. "Go home and act as if you really love your husband. Tell him how much he means to you. Praise him for every decent trait. Go out of your way to be as kind, considerate, and generous as possible. Spare no efforts to please him, to enjoy him. Make him believe you love him. After you've convinced him of your undying love and that you cannot live without him then, drop the bomb. Tell him that you're getting a divorce. That will really hurt him." With revenge in her eyes, she smiled and exclaimed, "Beautiful, beautiful. He will be so surprised!" And she did it with enthusiasm, acting "as if she loved him."

For two months she showed love, kindness, listening, giving, reinforcing, and sharing. When she didn't return, the doctor called. "Are you ready now to go through with the divorce?" "Divorce?" she exclaimed.

"Never! I discovered I really do love him." Her actions had changed her feelings. Motion resulted in emotion. The ability to love is established not so much by fervent promise as often repeated deeds. Show me a church where there is love, and I will show you a church that is a power in the community.

REASONS TO LOVE ANOTHER:

LOVING ONE ANOTHER REFLECTS CHRIST: (John 13:34-35)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LOVING ONE ANOTHER COMPLETES THE LAW: (Rom 13:8)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man has fulfilled the law.

LOVING ONE ANOTHER IS A RESULT OF SALVATION: (1 Pet 1:22)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your brothers,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LOVING ONE ANOTHER IS AN EVIDENCE OF CHRISTIANITY: (1 John 3:10)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a child of Go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LOVING ONE ANOTHER IS A DEMANDED COMMANDMENT: (1 John 3:23) And this is his command: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o love one another

as he commanded us.

LOVING ONE ANOTHER IS A RESPONSE TO GOD LOVING US: (1 John 4:7-11)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Love is more than a characteristic of God: it is His charac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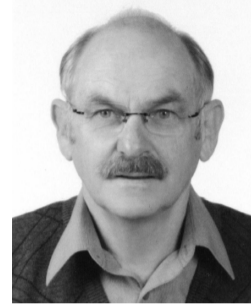
A certain medieval monk announced he would be preaching next Sunday evening on "The Love of God." As the shadows fell and the light ceased to come in through the cathedral windows, the congregation gathered. In the darkness of the altar, the monk lighted a candle and carried it to the crucifix. First of all, he illumined the crown of thorns, next, the two wounded hands, then the marks of the spear wound. In the hush that fell, he blew out the candle and left the chancel. There was nothing else to say.

LOVING ONE ANOTHER DEMONSTRATES GOD'S EXISTENCE:

(1 John 4:12)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May Jeonju University be a place that reflects God's love!

Israel has a long and interesting history.



by James Millar

"The world is a book and those who do not travel read only one page." (St. Augustine). "We live in a wonderful world that is full of beauty, charm and adventure. There is no end to the adventures we can have if only we seek them with our eyes open." (Jawaharal Nehru). One of my sons has travelled to 14 different countries and my daughter has been to 16, and planning on more. My wife has been to 13 and I've been to 10 different countries. I know people who have been to many more. As Nehru said, the world is full of beauty, charm and adventure. It's difficult to tell you the best place to visit. It often depends on your reason for travelling, or what you did in a particular country. We have had some extraordinary experiences, seen some amazing things (the Eiffel Tower and Niagara Falls, for example) and met many wonderful people.

One country stands out for me. I have been there three times, stayed there for almost 9 months, and seen much of this small country which is often at the center of the news around the world. Israel has a long and interesting history. The Old Testament in the Bible is set in Israel

and records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t is the only nation on earth that inhabits the same land, bears the same name, speaks the same language, and worships the same God that it did 3,000 years ago." (Charles Krauthammer). However, there is evidence that people lived in Israel long before that time. Everywhere you go in Israel, you will find ancient buildings and roads. You can visit many places where archaeologists are digging up old towns, and finding houses, streets, jewelry, pottery, tools and weapons. Recently a helmet of a Greek warrior of the 6th-5th century BCE was discovered on the seabed in Haifa Harbor. My wife and I visited an archaeological site in Northern Israel where we saw parts of buildings that were perhaps 4500 years old. In Beit Shan where people lived 10,000 years ago, we saw where Egyptians, Greeks, and Romans had built their cities. They destroyed the previous city and built their own on top. Israel is an interesting place to visit if you are a Christian. Jesus, the son of God, was born in Israel. It is easy to find many of the places we read about in the Bible's New Testament. It's exciting, to stand on the place where Jesus spoke to crowds of people; to walk along a street in Jerusalem where Jesus walked; to swim in the river that Jesus was baptized in; to visit a town where Jesus probably worked.

When you visit a country, there is more to appreciate than the scenery. History, culture and the people make a country what it is. That's where you find the charm of Israel.



By Shawn DeLong

Here at Jeonju University, classes began on September 3rd. Old friends and new ones gathered in classrooms. Professors stood near the whiteboard introducing themselves. Students cracked open their book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saying to themselves, "Here we

go again".

Many students wondered how will this semester, this class, this lesson, be any different than the hundreds they've sat through in the past. How will this person in the front of the room make an impact on them? The classroom walls haven't changed. The walls are still covered with the pieces of clear tape from last year's posters. The professors clicked through a power-point presentation that showed their e-mail address and office hours, the same way they had in previous years. They looked around the room and saw many of the same faces as they had before.

Why would a student that got a B or C last semester think their fate will be any different? They

sat in the back of the classroom still wanting an A+ but knowing very little has changed since last semester when they didn't achieve one. These thoughts are shared by roughly 2/3 of the students at Jeonju University at the beginning of every semester. It can be a pretty depressing and scary situation to find yourself in.

If you were one of those students, it's time for a change. You were right. Everything around you is pretty much the same but the thing that can be different is you and how you see the world.

Motivational speaker and author, Dr. Wayne Dyer uses the famous saying, "When you change the way you look at things, the things you look at

change". The only variable you have any power to change is how you think about the people and things you see. Your perception of things has a huge impact on those things. If you think of yourself as a C student you will be. If you think of yourself as a great student, classmates and teachers will start to see you that way too.

Instead of looking at the professor as someone who might give you a C think about them as someone that can help you achieve an A+. Instead of seeing your classmate that got an A+ as competition, imagine them as an example that you can follow to become a better student. Instead of seeing the classrooms as places where you will be graded

see them as a places where you will be exposed to new people and ideas. Focus on learning rather than focusing on grades.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instead of always focusing on the outcome.

This reminds me of the scene in the famous Robin Williams movie Dead Poet's Society, where the professor stands on top of his desk. He asks, "Why do I stand up here?" He answers, "I stand upon my desk to remind myself that we must constantly look at things in a different way." If you are feeling like you are trapped in a classroom. I challenge you to stand up on your desk and get a different view of life at Jeonju University.

A time for change



UNIVERSITY
**JOB *
Festival**

지방대생의 유쾌한 반란 PROJECT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하는 **대학취업 페스티벌**



전주대학교 일어나자!

일시 : 2012.09.20 (목) 10:30~18:00

장소 : 스타센터 1층 온누리홀 (10:30~16:30)

스타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 (16:30~18:00)



| 행사접수안내 |
학생회관 2층 로비
(9월 12일까지)

선착순 200명!